

기적소리 80년 그리움 되어 칙칙폭폭 문화마을 달린다



순천시는 근대문화 유산인 조곡동 '철도관사 마을'을 관광 상품화하기 위해 철도벽화를 조성하는 등 다양한 콘텐츠 개발을 하고 있다.



1930년대 순천 철도사무소



철도역사 문화마을 만들기 워크숍을 마친 참가자들이 하이팅을 외치고 있다.

순천 조곡동 '철도관사 마을' 관광상품화 박차

1936년 조성...2011년 마을 유래찾기 사업 시작 마을박물관·철도벽화·콘텐츠 개발 관광객 유인 주민들 적극 참여 민박촌·골목정원 만들기 나서

일제강점기인 1930년대. 순천에 철도사무소가 생기면서 인근 주민들은 광음을 내며 질주하는 기차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증기를 내뿜으며 달리는 기차는 낭만이 깃든 거친 매력이었다. 이후 철도사무소에 기관사나 철도 사무원들이 상주했다. 조곡동에 철도관사가 자리한데서 '철도관사 마을' 이름이 유래됐다.

순천시가 근대의 상징인 철도와 기차에 관한 많은 이야기가 담긴 근대문화 유산인 '철도관사 마을'을 관광 상품화한다.

◀낭만이 깃든 철도관사 마을=철도관사 마을이 있는 조곡동은 봉화산이 안아주는 아늑한 동네다. 동천변에 자리한 조곡동은 죽도봉을 경계로 독실마을과 재경골로 나뉜다.

한가운데 죽도봉에는 순천의 역사가 깃들여 있는 팔마탑, 강남정, 연자루, 환선정이 자리하고 있다. 순천시를 조망할 수 있는 죽도봉 공원과 동천 벚꽃길, 장대공원은 시민들의 편안한 쉼터이자 만남의 장소다.

조곡동에는 순천이 교통의 요지, 철도의 관문임을 말해주는 순천역과 동순천역터, 급수탑, 철도관사, 철도운동장 등의 역사 자원이 있다.

순천의 도시 역사와 맥을 같이하며 순천 철도역사를 한눈에 보여주는 조곡동 철도관사마을은 소중한 근대역사 자원이다. 순천 근대기 첫 계획 도시였던 철도관사마을은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철도관사 마을이며 한국 철도사의 일부이다.

조곡동 철도관사는 일제 강점기인 1936년에 철도 종사원의 주거와 복지를 위해 건축이 된 152가구의 집단 거주지였다. 경북 영주 등 타지역에 비해 규모가 가장 클 뿐 아니라 당시 순천을 크게 변화시킨 신도시라 할 수 있다.

조곡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지난 2011년부터 지역의 정체성을 되찾고자 '철도관사 마을' 유래찾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어 2013년부터 본격화되어 주민의 참여와 관심으로 철도 문화마을을 만들어 가고 있다.

순천의 도시 역사와 맥을 같이하며 순천 철도역사를 한눈에 보여주는 조곡동 철도관사마을은 소중한 근대역사 자원이다. 순천 근대기 첫 계획 도시였던 철도관사마을은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철도관사 마을이며 한국 철도사의 일부이다.

순천시는 2018년까지 철도 관사마을 관광자원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 사업은 철도관사 복원 및 철도마을 허브공간을 조성한다. 철도마을 허브공간

은 세미나실 안내센터, 기념품점 등이 들어서게 되고 일본식 골목정원과 사철나무 울타리 등을 재현한다.

또 타코야기, 우동 등 일본식 먹거리 거리 타운, 현재 주민이 살고 있는 철도관사를 이용하여 민박촌을 조성할 예정이다.

이 밖에 한국철도와 철도종사원, 관사마을 스토리가 담긴 테마공원을 조성하고 죽도봉 전망대, 관사 마을 골목 내에 포토존을 설치한다.

관광 자원화를 위해 문화 체험 및 탐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마을해설사를 발굴 운영할 계획이다.

순천시가 운영하고 있는 '도심권 문화탐방 야간투어'에서도 죽도봉 공원과 함께 관사마을은 인기를 끌고 있다.

야간투어는 문화의 거리, 시내 야경이 한눈에 보이는 죽도봉공원, 야간조명으로 아름다움을 더하는 동천벽화, 국내 유일의 평지 천문대인 순천만 천문대를 도는 코스다.

순천시 관계자는 "순천철도 관사마을 관광자원화로 일본인 관광객 유치 및 도심을 재생시켜 지역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순천=김은중·박선천기자 ejkim@

순천만정원 제1호 국가정원 지정 초읽기

국회 농림위 관련법 가결 내년 상반기 지정 전망

'순천만 정원'의 대한민국 제1호 국가정원 지정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최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림위) 상임위원회에서 순천만정원의 국가정원 지정을 위한 관련법인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수목원법)안이 가결됐다.

이로써 수목원법 개정안에 대한 절차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와 국회 본회의 상정만 남겨두고 있어 연내에는 통과될 것으로 보여,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는 순천만정원이 '국가정원 1호'로 지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수목원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주무부처에서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마련하고 국가

정원 지정을 위한 절차를 추진하게 된다.

또한 정원산업 촉진을 위한 각종사업과 이와 관련된 국가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다. 순천시는 '순천만정원은 국가정원 1호'라는 최고의 브랜드를 가지고 국내외 홍보 마케팅으로 대한민국 정원문화의 선도 도시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순천시 관계자는 "그동안 순천만정원 국가지정을 위해 각계각층이 노력한 결실이 모아져 수목원법 개정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며 "올해 안에 반드시 수목원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순천만정원은 지난 4월 20일 영구 개장한 후 대한민국 대표 힐링의 명소로 각광받고 있으며, 개장 228일째 지난 4월 340만명의 관람객이 다녀갔다.

/순천=김은중기자 ejkim@

순천만의 겨울진객 흑두루미 보러가자

새벽 탐조 내년 3월까지 운영

순천만의 겨울진객인 흑두루미의 군무를 볼 수 있는 탐조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순천시는 순천만 탐방객을 위한 겨울철 특별프로그램으로 흑두루미 새벽 탐조를 12월부터 3월까지 매주 일요일 오전 6시부터 9시까지 사전예약제로 운영한다.

이번 탐조 프로그램은 이른 아침에 잠자리인 갯벌에서 기지개를 켜는 흑두루미의 모습과 아침을 먹기 위해 능경지로 이동하는 흑두루미를 관찰할 수 있다.

또한 순천만의 생물다양성 및 서식



지 보전의 중요성 교육을 비롯해 전문 해설사와 순천만 탐조대에서 함께하는 흑두루미를 포함한 겨울철새 탐조와 흑두루미 먹이나누기 등 다채롭게 진행된다.

탐조 프로그램 참가신청은 순천만 자연생태공원 홈페이지(www.suncheonbay.go.kr)에서 하면 된다. 문의(순천만보전과 061-749-6083)

/순천=김은중기자 ejkim@

청암대 총학생회 김장담그기 봉사 활동·후원금 전달

순천 청암대학교 총학생회(회장 이승진)는 최근 순천 종합사회복지관에서 '2014 사랑나눔 김장담그기 봉사활동 및 후원금 전달식'을 가졌다.

이번 행사는 연말을 맞아 나눔문화를 확산하고 소외계층과 어려움을 함께하는 이웃사랑 실천을 위한 것으로, 정용태 학생복지처장과 총학생회 간부 10명, 순천 종합사회복지관장이 참여했다. 이날 담근 김장김치 2500포기는 순천시청을 통해 관내 독거노인 및 저소득층 가정 등 형편이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됐다.

또한 청암대는 재학생 2875명이 이웃사랑을 위해 모금한 후원금 330만8100원도



김장김치와 함께 종합사회복지관에 전달했다.

정용태 학생복지처장은 "이번 행사는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는 지속적이고 진정성 있는 사회공헌 활동을 할 것"이라며 "지역 소외계층이 사랑이 듬뿍 담긴 김치를 먹고 건강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순천=김은중기자 ejkim@

단 한번뿐인 결혼, 그 감동의 드라마가 시작된다!!

대규모 연회장서 각 행사에 걸맞는 최첨단 조명, 음향 시스템으로

결혼식, 피로연, 돌잔치, 기업행사, 대형행사서

소규모 행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회연출이 가능합니다.

귀빈을 모시는 마음으로 고객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JS 웨딩컨벤션

062)385-7011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886-2번지(태양열 주차장 뒷편)

- 오후 3시 이후 결혼식 예약 고객께 특별할인 및 다양한 서비스 제공
- 연말연시 각종모임 및 송년회 예약 중!!